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교회를 사회적, 세속적
인간관계의 연장이나 또
하나의 세속적 모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믿으며 서로에게
상처받은 관계를 끊임없이
용서 안에서 회복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믿기에
서로 이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신 윤 식

우리는 멈추어지지 않는 존재
약속되어진 미래를 향해
우리는 날마다 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
빛어져 가는 토기이니
너의 모습에서 나를
나의 모습에서 너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토기장이를 본다.

그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며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일 토기장이를 만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4.10

발행호수 제19권 15호

본 문의 내용은 권위의 대한 충돌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힐문합니다. 그들이 말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자신들이 모르는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전에서의 일만큼은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 또한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해당되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사건은 제물을 사고파는 일과 환전하는 것을 허락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감히 예수님이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제사장과 장로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아이들의 찬송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여기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성전에서의 활동을 허락한 적도 없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별 볼일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것은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인데 자신들은 예수님

주일오전설교
마 21:23-27

권위의 문제

에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힐문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권위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라는 지위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고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힘으로 수단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사장인 나와 제사장이 아닌 너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지만 너는 제사장이 아니기에 나와 같은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이었고, 오늘날에도 권위를 잘못 이해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진리와 상관이 없는 왜곡된 길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제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살아감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입니다. 제사장들이 기업을 없이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로 생활을 하는 것도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제사장이라는 지위가 백성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있게 됩니다. 즉 권위를 힘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써 권위가 있으니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이것이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이처럼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권위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지위 자

체가 권위가 있고 그래서 목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권위로 여길 때 목사는 자신을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힘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힘 있는 자로서 교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하면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고 답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는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당시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한의 세례 문제를 꼬집어내신 것일까요? 권위에 대해 물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의 권위다’ 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권위로 대항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차이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의 권위를 힘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권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들이 난처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이나 장로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라는 지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해하는 권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위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길로 가는 것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왜곡된 권위 앞에서 예수님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권위를 힘으로 여기는 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참된 권위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는 어떤 특정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나 장로라는 지위 자체를 권위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지위에 따른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고 그 권위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만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에게 참된 권위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교회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된 권위를 위해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말씀을 앞세우고 하면서도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교회의 권위 상실입니다. 참된 권위가 상실됨으로써 교회 또한 권위주의의 길로 빠져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면 그 존재성은 힘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참된 힘이 아님을 아는데서 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을 따라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권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권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확대를 추구하는 교회 또한 이러한 권위보다는 세상에 힘으로 군림할 수 있는 권위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처럼 권위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머문 채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만 힘을 씁니다.

막 1: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권위는 예수님보다는 서기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나 말투와 상관없이 가르치신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서기관과 다른 교훈을 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말씀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 드러납니다(막 1:23-27). 이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도 순종하게 되는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주어진 권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생명에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권위는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이며 신자의 권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권위 있는 자로 만납니다. 목사든 장로든 모두가 동일한 권위에 속해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책은 단지 역할을 위해 존 재할 뿐이지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권위는 사탄에게 속한 자로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권위 있는 신자입니다.

현 대 교인들은 신앙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신앙의 측면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령이 오신 것이 개인적 경험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신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 받은 신자에게 있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집단에서 나타날 수 없는 특이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 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뜻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국한된 용어가 아닙니다. 즉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안수 받는 것을 성경이 말

주일오후설교

1요 2:27-29

성령과 교회

(성령12강 3.27일 설교)

하는 기름 부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부르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신자가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이 곧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나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믿고 그대로 살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가 아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개인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거부한 채 서로가 자신의 앞만 고집한다면 다툼과 충돌만 있을 뿐 용서와 섬김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는 사도의 말은 성령이 함께 한 신자는 성령의 주도를 받으며 생명으로 이끌림 받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사건에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개입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령이 목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고, 목사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사건은 오직 성령의 간섭과 주도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를 교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와 신자가 가르치

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 만난다면 동일한 관계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라는 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사는 교인을 가르치는 자로써 복과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교인은 목사에게 종속 되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 모든 것을 통달했기에 들을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추호라도 있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이 거하는, 즉 성령을 받은 신자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복음적으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신자는 생명에 거하게 됨을 의심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체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고 그것이 높고 낮음의 구별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간섭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는 많이 높고 낮음의 구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앎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은총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차이가 높고 낮음의 구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네가 뭘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는 말도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자신을 가르치는 말로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알게 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역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과 주도로 인한 열매임을 믿는다면 신자는 믿음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모인 교회라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차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내게 듣게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께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갔을 때 뒤를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일행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 놓고도 그것으로 마음이 찢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인간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즉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를 심판할 자격이 내게는 없게 됩니다. 서로를 성령의 주도로 살아가는 지체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 나남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누구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자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 선지자가 보게 되는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온 땅에 저주가 되는 것일까요?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루마리에는 글이 적혀 있는데 그 글로 인해서 도둑질 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끊어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둑질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 또한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드는 현장에서 불살라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속한 존재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즉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에바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되는 말인데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고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으로 덮어 버리는 환상입니다. 곡식을 되는 말에 악으로 표현되는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이 에바에 가득한 것처럼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또 본 것은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옮기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천사에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느냐고 묻자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고 말합니다(11절).

이스라엘의 악의 상징인 에바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수요일설교
숙 5:1-11

환상
(저주와 악)
(6장 3.23일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악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서 악을 옮기셔서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바를 들고 시날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준공되면 옮겨간 에바가 그 처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시날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가득한 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에바가 그 처소에 머물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처소는 악을 제거하는 기능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처소, 즉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소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날 땅으로 악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준공되면 악을 머물게 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유다가 건축하고 있는 성소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내용은 성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에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비록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악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한 채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들에게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죄 용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이 악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실상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방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것이 자신들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유다와 같은 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악으로 가득한 자기 실상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통해서 악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으로 가득한 자가 어떻게 해서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심판에서 구원 받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악으로 가득한 자기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은 없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신자를 구원 받기 전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구원 받은 신자가 구원 받은 신자로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악으로 가득한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신자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은혜의 보답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말해야 하고 구원 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은 구원을 빙자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좋은 일군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교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라는 악으로 가득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없으면 안되는 것이 악으로 가득한 것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알수록 은혜의 깊이는 더욱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 날아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놓고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불살라지는 심판이 여러분께 마땅한 결과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을 십자가에 머물게 하셨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가 참된 감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4장
교 독 : 80(고후4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300장
성 경 : 마 21:23-27
말 씀 : 권위의 문제(13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2장
기 도 : 장영대 집사
찬 송 : 432장
성 경 : 요 16:7-11
말 씀 : 성령의 역할(성령 1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9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라 강해(9강)

■ 교회소식 ■

1. 24일 부활주일에는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은 각 구역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아세례 포함).



다음주 기도

오전 조규현 장로 오후 이경숙 집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①

사람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진심으로 생명의 문제에 있다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 두기도 하고, 또는 자신만의 휴머니스트를 이루는 것에 두기도 하고, 바리새파 의인 식의 활동을 통해 도덕인이 길을 가는 것으로 삼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임으로 드러나야 한다. 휴머니스트든 도덕적인 삶이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존재하는 집단이라면 그것을 교회의 교회됨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고 증거되는 교회의 교회됨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 자각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이 없이 하나님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영광과 높아짐을 위한 조력자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악으로 여기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인간이 자기 영광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악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때는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세상적 조건이 그를 우월한 자로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자존심과 긍지는 파괴되어 무너진 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것으로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누구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진정한 증거다. 진심으로 십자가를 알고 깨달았다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다. 이러한 신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 우리 모두가 진노의 대상일 뿐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활동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여겨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